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농촌일손돕기 행복충전 활동 실시

[농어촌공사 기자]



▲사진=농촌일손돕기 행복충전활동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 영암지사(지사장 전지영)는 5월 23일(금) 영암군읍 망호리 소재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농촌일손돕기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마늘재배 농가에서 진행하였는데,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암지사 직원 30여명이 참여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마늘뽑기 작업을 완수하였다.

전지영 지사장은 "고령화로 인해 영농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 이나마 힘을 보탬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하고 더불어 지역사회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